

전남대 학생들 농촌봉사활동



25일 대학가가 방학시즌에 들어가면서 학생들의 농촌봉사 활동이 본격 시작됐다.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학생 30여명이 최근 광주시 남구 대지촌마을에서 모내기를 위한 모판을 뜨고 있다. /니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현대차 합작 '광주형 일자리' 미래 새로운 일자리의 모델로 정립

'빛그린산단...' 토론회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작 투자하는 자동차 공장 설립을 앞두고 '광주형 일자리'를 미래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시가 26일 시청 무등홀에서 개최하는 '빛그린산단, 광주형일자리 선도모델 실현방안'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박명준 수석전문위원은 사전에 발표한 발제문을 통해 "빛그린산단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광주형일자리가 실현될 수 있는 노사 간의 원리 등을 정립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리'를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이라고 명시했다.

는 시기로, 공장이 가동되면서 여타 갈등의 조정, 복지 지원 등 후속 조치가 집행되는 시기다.

박 위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빛그린산단을 통해 자동차 신규공장을 유치하면서, 원하청 관계와 노사 관계의 혁신을 단행하고, 그것이 가능한 전제 위에서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시간의 원리를 구현하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공장 하나만이 아니라 빛그린 산단 전체를 '상생일자리특구'의 형태로 규정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빛그린산단 내 노조와 관련된 해서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를 아우르는 '결함 교섭'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문위원은 "원청기업 노조와 하청을 대표하는 산단 노조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산업단지의 노사민정 협의체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빛그린산단,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 실현방안' 토론회에는 전남대 박해광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영, 노동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범진보 157석... 개혁 추진 연대할까

/ 뉴 스 초 점 / 민주·평화·정의당 개혁벨트 구축론

평화당 의원들 한국당·바른미래당 제외하고 원구성 주장
민주당과 연정·당대당 통합까지 희망... 민주당은 선긋기

6·13 지방선거 후 일부 야당을 중심으로 '범진보 개혁연대' 구축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13 지방선거 참패 후폭풍에 휘말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정상화를 기약 없이 기다리지 말고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진보 정당들이 개혁연대를 형성, 국정을 주도해 나가자는 게 주장의 요체다.

범진보 개혁연대 구성 주장은 평화당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25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오늘! 김혜

영입니다'에 출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뺀 세력을 모아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한 개혁입법연대로 국회의장과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해 개혁입법을 처리하는 게 주장이다. 천 의원은 "개혁입법연대에 함께 할 수 있는 의원들을 계산해 보니 민주당 130석, 평화와 정의의 모임 소속 20명,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분, 그밖에 무소속까지 다 합쳐보면 최소 157명"이라며 "157석이면 국회의 18개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

다. 이어 "하반기 원구성에서 국회의장과 함께 모든 상임위원장을 개혁파로 선임하고 모든 상임위의 과반수를 개혁파가 차지할 수 있게 해서 촛불민심이 열망하는 개혁입법을 강력히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평화당 박지연 의원이 지난 22일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구성 등 원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져 7~8월로 넘어가면 민생법안과 개혁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국회의 기능이 상실된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주장은 6·13 지방선거 전부터 평화당 내부에서 제기됐었다. 평화당과 민주당의 연정, 나아가 당대당 통합까지 바라는 당원들도 은근히 많았다. 따라서 지방선거 후 평화당의 개혁연대 주장은 이 같은 바람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연대를 통해 친밀감을 유지한 뒤 자연스럽게 연정이나 통합을 추진하자는 게 평화당 내 일각의 생각이다.

여당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평화당과 정의당이 동참하지 않고서는 국회 내에서 독자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주장이다. 민주

당 의석수가 130석으로 늘긴 했지만 여전히 과반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선거 전 진보개혁진영의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148석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과반인 157석까지 확보했으니 마음만 합진다면 국회 내에서 개혁입법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민주당의 태도다. 현 추미에 대 표는 일단 연정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대부분 의 주자들도 연정과 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까지 부정적이다. 인위적 정계개편은 국민으로부터 배척을 받게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무엇보다 현재 누리는 여당으로서 정치적 혜택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단 개혁연대까지는 가능하지만 연정 나아가 통합으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서는 총선이 2년 남은 상황에서 내부에 평화당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면서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야 할 여당이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끝까지 연정이나 통합을 반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장마 ☔ 폭우

광주·전남 전 지역에 비... 내일까지 80~150mm

복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26일 광주·전남 전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장마 기간에는 시간당 30mm 이상 기습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7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80~150mm 비가 내리겠으며, 많은 곳은 200mm 이상 폭우도 예상된다"며 "이번 장마는 장마전선에서 발달하는 비 구름대의 폭이 좁아 특정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지역별로 강수량 차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고 25일 밝혔다. 기상청은 또 27일에는 남하하는 장마전선 영향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의 영향으로 지난 주부터 이어져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지만, 비가 일부 소강상태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다시 무더위가 찾아올 수 있다"면서 "당분간 서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도 많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일보
5·18 때 헬기 여러대가 시민항해 발포 -선교사 언더우드 미 보고서에 기록 ▶6면
16강 가능성 1% 한국, 기적의 도전 -내일발 랭킹 1위 독일과 대결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피부피로를 다스리는 매화의 힘으로 더 탄탄해진 생기를 누리다
설화수 설린크림

아무리 건강한 피부라도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피부피로를 관리하지 못하면 피부 노화로 이어집니다. 매일매일 지치지 않는 피부 생기로 차오르는 설화수 설린 강력한 항산화에너지를 함유한 매화성분이 피부 피로를 다스리고 건강한 탄력과 생기를 깨워 눈부신 피부를 선사합니다.

Sulwhasoo
BLOOMSTAY VITALIZING CREAM
설린크림

Sulwhasoo